



#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에 농민은 불안하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요즘 세대차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40대 후반이면 어려서 고생하며 자라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준다.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이 왜 굶어야 했고, 보릿고개가 왜 있어야 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 부모들이 못나서 고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생각으로 근검절약은 옛날 도덕책에 있었던 단어이고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부자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

도시락 반찬에 계란후라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집은 동네에서 부자집 자식에 틀림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소풍 때 바나나 한 쪽을 싸오면 그 학생은 먼 단위 부자가 아니라 시 단위 부자집 아들이나 되어야 했다. 바나나도 혀로 살살 핥아 먹어야지 아까워서 씹어 먹지도 못한다. 모든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쇠고기의 경우도 추석과 설날에나 국을 끓여 국물을 먹을 수 있었고, 잘 사는 집안이라야 제사날에 쇠고기 맛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 민족은 아마도 쇠고기와 바나나에 한이 맺힌 민족인지도 모른다.

금년 들어 정부는 바나나를 수입개방하였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는 단서가 있지만, 수입쇠고기를 무제한 방출하겠다는 발표를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바나나는 금년에 약 2억\$ 어치가 수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쇠고기는 지난해 3억4천만\$에서 금년에는 8억\$가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62억\$를 넘었다는 보도와 함께 바나나 2억\$ 수입예상이라는 보도가 함께 나온 것을 보면 먹기는 먹어도 즐겁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과일도 바나나 외에 우리가 잘 아는 자몽, 키위 등 우리 조상들은 구경도 못하던 과일과 주스원액의 형태로 수입되고 있어 입맛에 맞추어 먹을 수 있다.

고기도 수입쇠고기만 먹으면 아무리 쇠고기에 한이 맺혔다지만 싫증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삼겹살을 비롯해 칠면조, 토끼고기, 돼지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해서 번 돈으로 쇠고기와 바나나를, 삼겹살과 각종 육가공제품을, 분유와 양념류를 수입하고 양주, 포도주, 맥주, 마오타이, 보드카를 수입해도 태평성세가 되기보다는 사회불안만 가중될 뿐이다.  
즉,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수입정책을 쓰는 것은 손끝의 아픔만 생각하고 심장이 상하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고기통조림, 소시지 등 구색을 맞추어 입맛대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제 사슴고기, 흑염소고기까지 수입개방되어 몸이 허약한 사람은 몸보신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쇠고기와 바나나 사먹는데 10억 \$이 드는데 고기에는 술을 곁들여야 제격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유명 술들이 수입되어 술과 고기가 지금처럼 풍족한 적이 우리 역사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주지육림(酒池肉林)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양주, 포도주, 맥주 등 식성에 따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양파값이 오르면 양파를 수입하고, 삼겹살을 원하면 삼겹살을 수입해 주는데, 신문을 보면 태평성세라고 하지 않고 사회가 불안하다느니 위기니 하는 것을 보면 역시 농촌이 안정되지 않고는 사회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농민들이 그나마 소득작목으로 생각하는 양돈도 돼지고기 수입으로 불안해 하고 있으며, 분노 처리를 제대로 안한다고 수시로 구속하니 이러한 분위기에서 영세농가는 불안하기만 하다.

또 이들 영세농가는 재벌이 아니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대규모 양돈으로 정책을 바꾸려 하는데 대하여 이제 축산업도 농민의 손을 떠나

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규제는 없어져야 하며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농업분야에 정부의 지원이나 간섭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강자의 논리가 공직사회에 받아들여지는 세태가 서글플 뿐이다.

우리가 공산품을 많이 수출해서 번 돈으로 쇠고기와 바나나를, 삼겹살과 각종 육가공제품을, 분유와 양념류를 수입하고 양주, 포도주, 맥주, 마오타이, 보드카를 수입해도 태평성세가 되기 보다는 사회불안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캘리포니아산 쌀밥을 맛볼 날도 멀지는 않겠지만, 농축산물이 물가의 주범이라고 마구잡이 수입정책을 쓰는 것은 손끝의 아픔만 생각하고 심장이 상하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농민들은 보고 있다.

농촌은 뿌리, 도시는 꽃이라고 하는데, 뿌리도 잎도 시들면 꽃인들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겠는가?

열심히 일해서 수출하는 것이 바나나, 돼지고기, 술이나 수입해 먹으려 한다면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오래 가지는 못하리라.